정읍시, 휴대폰 앱으로 어르신 돌봄

건강·복지·돌봄 등 요구사항 등록하면 돌봄 매니저 방문 상담 '케어넷' 시범 서비스 다음달까지 신청…시민 누구나 가입 가능.

정읍시가 어르신 돌봄서비스 '케어넷' 운영을 준비하는 등 복지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

정읍시는 스마트 통합돌봄 도시 구축을 위해 돌 봄 데이터 연계서비스인 '케어넷' 시범운영을 하 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와 함 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돌봄 데이터 연계서비스 플랫폼인 '케어넷' 앱을 통해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 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케어넷 앱에 가입해 본인 또

는 주변의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건강, 복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요 구사항을 등록하면, 지역 마을돌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방 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 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문

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돌봄매니저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돌봄 의뢰자와 마을돌봄매니저는 케 어넷 앱을 통해 채팅으로 상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며, 앞으로는 서비 스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돌봄접수와 관련된 문의 는 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이 메일(institute.communitycare@gmail.com) 또는 오픈채팅방(https://open.kakao.com/o/ sKYgSDzg)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명예·발전 이끈 '시민의 장' 6인 선정

다음달 4일 시상

남원시민으로서 향토의 명예 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헌신적 자세로 봉사해 온 '남원시민의 장'6개 부문 수상자가 결정됐

남원시는 남원시민의장심사 위원회가 열려 '제30회 남원시

민의 장' 수상자가 확정됐다며 오는 10월4일 개최 될 '제32회 흥부제' 기념식을 통해 '남원시민의 장'이 수여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상자는 문화장에 박강용(61·금동) 씨, 체육 장 한병산(54·도통동) 씨, 효행장 레티감홍(41세 ·여·왕정동) 씨, 봉사장 박영태(72·도통동) 씨, 산 업노동장 정대환 씨, 애향장 이엽(59·주생면) 씨 등이다.

문화장 박강용 씨는 현 남원시 옻칠공예관 관장 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옻칠장'으로 남원시를 대표하는 옻칠장인이다. 특히 전통 목공 예산업 계승발전 및 옻칠산업연구를 통해 남원시 가 옻칠 공예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체육장 한병산 씨는 현 남원시체육회 이사 및 남 원거점스포츠클럽 부회장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장 박강용 씨 체육장 한병산 씨 효행장 레티감홍 씨 봉사장 박영태 씨 산업노동장정대흰 씨 애향장 이엽 씨

에 노력했다. 국제대회를 비롯한 전국대회, 도민 체전 등 다양한 체육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 한 대회 운영에 솔선수범의 자세로 헌신봉사함으 로써 지역 체육인의 명예를 드높였다.

효행장 레티감홍 씨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 성으로 언어, 문화, 고부갈등 등 이주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타 다문화가정 의 모범이 됐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를 위 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

봉사장 박영태 씨는 현 남원시 관광협의회 위원 장으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사랑의열매 자 원봉사 단장 등 여러 봉사단체장을 역임했다. 오 랫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헌신봉사를 실천하 며 지역 사회에 나눔봉사문화를 확산시켰다.

산업노동장 정대환 씨는 2019년 지리산농협 조

합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남원시 농산물 수출증 대 및 산지유통분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농산물 통합마케팅사업 활성화와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원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애향장 이엽 씨는 현 재인천남원향우회장이자 신세계야구단 부장으로 고향 남원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물심양면 후원과 선행을 펼쳐 왔다. 고향의 각종 행사 및 재난·재해에도 솔선수범하며 출향인의 귀감이 됐고 향우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 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남원시민의 장'수상자는 영예로운 시상식을 통해 시민의장증, 흉장, 어깨띠를 수여받고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순환골재 재활용 사례 국무총리상

건설 폐기물 감축 ·예산 절감

정읍시가 환경부와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에 서 주최한 '제15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활용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 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정읍시는 관내 도로포장 공사에 순환골재와 재 생아스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설폐기물을 줄 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환경 보호와 경제성을 동 시에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의무사용 기준 40%을 훨씬 넘어서는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순환골재와 재생 아스콘의 사용 빈도를 높이고 특정 공사 현장 외에 도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확대 함으로써 시 예산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10월 개최되는 '2024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 용 사례 발표회'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설계안 확정

건축사무소 '오비비에이' 작품…2026년 완공



고창군의 공모를 통해 확정된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설계안 투시도

고창군이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설 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고창군은 지난 7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센터 건립 설계공모를 진행 한 결과 5곳의 건축사무소 에서 작품을 응모했고 이후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서 울 소재 건축사무소 '오비비에이'의 작품이 선정 됐다고 10일 밝혔다.

당선작은 전시 공간에 대한 용적이 돋보이고 전시 구성에 효과적이며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가 지역센 터의 기능과 장소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 조성되는 '고창갯벌세

계유산지역센터'는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로 완공 될 예정이다.

고창갯벌의 보전 모니터링 등의 관리업무와 생 태관광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센터에서는 다양한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 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설계(제안)공모를 추진하는 등 건립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창업 패키지 지원·주택 대출이자·동아리 지원 등 정책 호평



황민안(오른쪽)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이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소통대상을 받고 있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2024년 제7회 청년진화헌정대상 호남권역 소통대 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 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 치단체를 선정,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표창이다.

특히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친화선정위원회의 정량평가와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만 큼 그 의미가 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2022년 청년정 책을 전담하기 위한 청년창업팀을 신설하고, 청년 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목표로 적극적인 청 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청년정책 참여기구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이자 지원,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지원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 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지속적인 청년 지 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됐 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가 될 수 있 도록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